韓國製造業의 産業組織

李 奎 億

▷ 目 次 ◁

Ⅰ. 序 言
Ⅱ. 製造業部門의 成長
Ⅲ. 企業集中의 趨移
Ⅳ. 財 閥
Ⅴ. 結 言

Ⅰ. 序 言

現代的인 生産技術을 통하여 이룩되는 經濟成長은 일반적으로 企業의 大型化와 市場의 獨占化를 수반하게 마련인데 獨占은 때때로 原初的 資本蓄積의 必要條件으로 간주되어 開發初期에는 이의 形成과 增大를 조장하는 경향이 많지만 經濟의 規模와 發展段階가 어느 수준에 이르게 되면 獨占의 弊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規制하게 되는 것이 資本主義體制의 공통된 歷史的 經驗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過程에 예외는 아니어서 1976年의 「物價安定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로써 價格을 중심으로 하는 獨占의 弊害를 제도적으로 規制하기 시작하였으나, 그 實效가 적었으며 특히 獨占化를 방치하였으므로 企業集中의 문제는 완화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최근 政府는 「獨占規制와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을 제정하여 獨占化 자체를 본원적으로 規制하고자 하는데, 아래에서는 이러한 배경 아래 1970~77年間 우리나라 製造業部門의 産業組織的 變化와 市場構造的 現況을 관찰함으로써 獨占規制에 관한 主眼點을 제공하기로 한다.

사용된 資料는 「鑛工業 統計調査 報告書」의 母資料로서[1] 아래의 논의에서는 이 資料에 입각하여 構造變化를 記述的으로 제시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市場構造를 분석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變數에는 出荷·雇傭·附加價値·資産 등이 있지만, 어떤 變數를 기준으로 하여 논의를 전개하여도 質的인 결론에는 변화가 없으며[2] 더우기 市場力을 가장 잘 나타내 주

筆者：韓國開發研究院 首席研究員

1) 本稿는 筆者와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과의 共同研究(近刊豫定)의 일부를 발췌·요약한 것임.

2) 이들 變數를 이용한 통계 결과는 筆者가 제공할 수 있음.

는 것은 出荷이므로 아래에서는 주로 出荷面을 다루기로 하고, 産業組織의 構造的 變化要因과 經濟的 效果에 관한 計量的 分析은 다른 기회로 미룬다. 일반적으로 市場構造가 문제시되는 이유는 市場構造가 市場行態와 市場成果를 결정하므로 市場構造가 競爭的인지 여부가 市場經濟의 성패를 가름한다는 것으로, 本稿에서는 이러한 産業組織論의 構造主義(structuralism)[3]를 채택하는 것이다. 같은 관점에서 각국의 市場構造를 분석한 결과는 일일이 소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몇가지 대표적인 것을 든다면, Hart(1960), Shepherd(1964), Pashigian(1969), Bain(1970), Pryor(1972), White(1974), Prais(1974), Ghosh(1974) 등이 있다[4].

그러나 本稿가 이들과 다른 점은, 우선 本稿에서 이용한 統計는 要約되어 出版된 資料가 아닌 調査原資料이므로 그들보다 훨씬 풍부하고 자세한 結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며, 다음으로 商品別 事業體別 資料를 이용함으로써 다른 硏究에서는 試圖될 수 없는 問題, 예컨대, 多工場企業, 財閥, 企業規模隔差 등에 관한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것이다.

〈表 1〉 製造業部門의 雇傭·出荷額·事業體數의 趨移

(단위 : 雇傭=千名, 出荷額=經常 10億원, 事業體數=千個)

	雇傭	出荷額	事業體數
1970	861	1,307	24.1
1974	1,298	5,473	22.6
1977	1,920	15,207	26.7

3) 이러한 입장을 최초로 체계적으로 정립한 것은 Mason (1959).

4) 市場構造와 市場成果와의 關係 및 市場構造의 決定要因에 관한 計量的 分析結果는 市場構造의 變化를 논의한 것보다도 훨씬 많은데 이에 관한 文獻은 拙著(1977)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음.

5) 本稿의 모든 統計는 5人 이상 雇傭事業體를 대상으로 한 것임을 유의해야 함.

Ⅱ. 製造業部門의 成長

1. 製造業 全體

1960年代의 급속한 經濟成長은 1970年代에도 계속되어 國民總生産은 1970~77年의 기간중 年平均 9.8%의 實質成長率을 기록하였다. 이것은 주로 製造業의 성장에 基因하는 것으로서 이 기간중 製造業部門은 年平均 18%로 성장하여 國民總生産 構成比가 1970年의 17.9%에서 1977年의 29.8%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製造業部門의 産業組織도 현저하게 변화하였는데 우선 事業體數·雇傭·出荷額의 세 가지 構造的 側面에서 검토하여 본다[5].

〈表 1〉에서 보면 製造業部門의 雇傭은 2.2倍 증가하여 總雇傭中 占有率이 13.2%에서 21.6%로 신장하였다. 또한 이 기간중 出荷額은 經常價格으로 11.7倍나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不變價格으로도 3.2倍에 해당하며, 반면 事業體數에 있어서는 불과 11%의 증가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1970年 이후 製造業의 雇傭과 出荷는 工業化政策에 따라 다른 産業部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지만 事業體數는 대체로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製造業의 성장은 事業體規模의 大型化를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事業體 規模別 趨勢에 있어서는 〈表 2〉에서 小規模業體(5~49名 雇傭)의 相對的 衰退를

지적할 수 있다. 즉, 小規模業體數의 全製造業體數 構成比는 1970年의 90.1%에서 1977年의 78.0%로 크게 감소하였을 뿐 아니라 雇傭과 出荷額에 대한 이들의 構成比도 각각 30.3%에서 16.1%, 14.6%에서 8.3%로 현저하게 저하하였다. 반면 大規模業體는 모든 면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0名 이상을 雇傭하는 事業體를 대상으로 하면, 事業體數, 雇傭, 出荷額 構成比가 각각 3.0%, 51.1%, 69.5%에서 6.6%, 62.4%, 76.4%로 증가하였다.

그러므로 앞서 지적한 事業體規模의 大型化는 小規模業體의 쇠퇴와 大規模業體의 生成으로 특징지을 수 있지만, 〈表 3〉에서 보면 모든 規模에 있어서 業體의 平均規模가 확대된 것을 알게 된다. 특히 小規模業體는 絕對數가 감소하였지만 殘存業體는 모든 指標에 걸쳐 현저한 成長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高度成長過程에서 새로운 大企業의 등장과 旣存企業의 大型化가 진행되어 왔지만 成長에서 낙오된 小企業은 淘汰된 경우가 많다고 하겠다.

2. 小分類 産業

위에서 槪觀한 製造業部門의 構造的 變化를 〈附表 1〉에 요약된 小分類 産業基準으로 좀더 자세히 검토하기로 한다.

먼저 製造業體數의 産業別 分布를 보면, 1970年의 5大産業은 食料品, 衣服, 纖維, 其他非金屬鑛物製品, 飮料의 순서로 전체의 53.5%를 차지하였으나 1977年에는 纖維, 食料品, 衣服, 組立金屬製品, 機械가 47.9%를 占有함으로써 과거에 비하여 組立金屬製品과 機械業體數의 격증을 볼 수 있다. 業體數 變化에 있어서는 食料品, 飮料品, 衣服, 其他鑛物製品 등 1970年의 9個 大宗産業에서 감소하였는데 이것은 小規模 業體의 淘汰에 기인한 것으로 판명되며, 반면 業體數가 증가한 나머지 17個 産業에서 增加分이 큰 것은 纖維, 工業用化學製品, 其他 플라스틱製品, 通信機械 등 重化學系統이 대부분이다.

〈表 2〉 事業體規模別 事業體數·雇傭·出荷額 構成比

(단위 : %)

	5~49名			50~199名			200~499名			500名 이상		
	事業體數	雇傭	出荷	事業體數	雇傭	出荷	事業體數	雇傭	出荷	事業體數	雇傭	出荷
1970	90.1	30.3	14.6	6.9	18.7	15.9	1.9	16.1	15.9	1.1	35.0	53.6
1974	83.7	18.2	8.6	11.1	19.0	15.1	3.1	17.9	21.3	1.9	44.9	55.0
1977	78.0	16.1	8.3	15.5	21.5	15.4	4.4	18.4	19.9	2.2	44.0	56.5

〈表 3〉 事業體 規模別 平均指標

(단위 : 雇傭=名, 出荷=經常價格 100萬원)

	5~49名		50~199名		200~499名		500名 以上		全 製 造 業	
	1970	1977	1970	1977	1970	1977	1970	1977	1970	1977
事業體當 雇傭	12.0	14.8	96.6	99.6	304.8	304.7	1,185.5	1,438.5	35.7	71.9
事業體當 出荷	8.8	60.3	124.9	565.2	457.1	2,612.5	2,758.1	14,624.1	54.2	569.6
雇傭人當 出荷	0.7	4.1	1.3	5.7	1.5	8.6	2.3	10.2	1.5	7.9

雇傭에 있어서는 纖維의 占有率이 20.1%로서 압도적 위치를 견지하고 있으며 그밖에 衣服, 通信機械, 食料品, 고무製品과 함께 5大 勞動集約的 産業이 製造業雇傭의 52.6%를 차지하고 있다. 雇傭變化를 보면 飮料品을 예외로 모든 産業에 있어서 증가하였으며 이 중에서 衣服, 고무製品, 通信機械 등 12個 産業에서는 占有率도 동시에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주목할 만한 것은 과거와 달리 大規模業體의 占有率이 減退한 産業은 工業用化學製品, 石油精製, 其他 플라스틱製品, 유리 및 유리製品, 第1次非鐵金屬 등 9個에 달하는데 이들 産業의 業體數 變化의 내용과 결부하여 볼 때 中規模 내지 準大規模業體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끝으로, 出荷額 比重이 큰 5大 産業은 1970年에 纖維, 食料品, 石油精製, 飮料品, 輸送裝備로 전체의 43.6%에 해당하였으며 1977年에는 飮料品 대신 通信機械가 4倍로 상승하였을 뿐 같은 産業群이 46.5%의 다소 증가된 占有率을 갖고 있다. 出荷占有率이 증가 내지 不變인 産業은 通信機械, 輸送裝備, 第1次鐵鋼, 石油精製 등 重化學系統을 위시한 14個이며, 감소한 産業은 飮料品, 食料品, 其他鑛物製品, 製材 및 木材品 등 12個이다.

이상의 결과는 重化學産業의 성장이 70年代 産業構造變化의 특징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대변하고 있으며, 또한 製造業의 성장은 일반적으로 小企業의 상대적 쇠퇴와 企業規模의 확대를 통하여 달성되었다고 하지만 70年代 前半과 비교할 때[6] 70年代 後半에는 中規模 및 準大規模企業의 비중이 크다는 사실은 결국 重化學業體가 대체로 勞動節約型 技術을 채택하는 것이므로 雇傭面에서는 大企業이 아니라는 것으로 이해되며,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70年代 後半에서는 企業集中의 深化趨勢가 부분적으로 둔화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6) 拙著(1977), pp.75~76.

Ⅲ. 企業集中의 趨移

1. 總括集中率

總括集中率(overall concentration ratio)은 産業의 구별없이 全製造業部門에서 一定數의 上位業體群이 갖는 占有率을 나타낸다. 〈表 4〉에서 보면 1970年의 雇傭 및 出荷基準의 上位 50大 事業體 總括集中率은 15.4%와 33.8%이며, 1977年에는 각각 14.6%와 29.4%로서 雇傭보다는 出荷額에 있어서 業體間의 不均等度가 높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며, 또한 두 基準의 集中率이 모두 저하한 것은 이 期間中에 中規模 및 準大規模事業體의 비중이 증대하였다는 사실에 基因한다.

그러나 事業體 總數를 감안하면, 예컨대, 上位 50大出荷業體를 기준으로 할 때, 1970年에는 全製造業體의 0.21%가 總出荷額의 33.8%를 차지하였고 1977年에는 全製造業體의 0.18%가 29.4%를 占有하였으므로 극소수의

〈表 4〉 總括 集中率의 趨勢

(단위 : %)

	雇傭基準		出荷基準	
	50大	100大	50大	100大
1970	15.4	22.8	33.8	44.6
1977	14.6	20.7	29.4	38.9

事業體에 經濟力이 편중되어 있다는 현상에는 별다른 변함이 없다. 더우기 多工場企業(multiplant firm)을 고려하여 總括集中率을 企業體 基準으로 산출하면, 集中率은 일층 높아지게 되어 1977年 雇傭基準 50大 및 100大 企業의 集中率은 16.9%와 23.9%, 出荷額基準으로는 각각 35.0%와 44.9%가 된다. 또한 上位業體群의 상당수가 財閥의 系列業體이므로 實質的인 經濟力의 集中은 集中率이 나타나는 것보다 더욱 현저하게 되는데, 예로써, 30大財閥[7]의 系列企業, 其他 民間企業, 國營企業으로 구분한다면, 〈表 5〉에서처럼 財閥의 系列企業이 압도적인 위치를 保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各 企業體의 資本集約度, 生産性, 市場支配力에 따라 雇傭基準에 의한 順位와 出荷基準에 의한 順位가 다르게 마련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두 가지 基準에서 100位 이내에 들어가는 企業體數는 1977年에 繊維 14個, 電氣機械 8個, 運送裝備 7個, 食料品 5個 등 58個로서 이들이 上位 100大雇傭企業과 出荷企業의 雇傭 및 出荷額에서 갖는 比重은 각각 72.4%와 59.3%에 달하고 있다.

다음으로 産業構造의 변모에 따라 1970年과 1977年의 上位 業體群의 産業別 構成이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을 出荷 100大 事業體를 대상으로 하여 小分類 産業別로 보면 다음과 같이 된다. 즉, 1970年에는 食料品(18), 繊維(17), 工業用化學製品(7), 飮料品(6), 고무製品(6), 其他非金屬鑛物製品(6), 第1次鐵鋼(6)의 순서였으나 1977年에는 繊維(14), 食料品(13), 電氣機械(11), 工業用化學製品(9), 第1次鐵鋼(9), 輸送裝備(9)의 순서로 바뀌었으며, 특히 종이 및 유리는 1977年의 100大 出荷事業體에서 탈락한 반면, 衣服, 가죽신, 機械 등에서 새로운 大規模 出荷事業體가 배출되었다.

또한 100大 事業體 總出荷額의 産業別 構成比에 있어서는, 食料品, 飮料品, 담배, 繊維의 占有率이 상당히 저하한 반면, 石油精製, 第1次鐵鋼, 電氣機械, 輸送裝備의 占有率이 크게 증가하여 이제까지 지적한 이 期間의 工業化 樣相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表 5〉 上位 100大 企業의 性格

	雇傭基準		出荷額基準	
	50大	100大	50大	100大
30大財閥系列企業	28(63.9)	47(56.3)	34(61.7)	53(56.8)
其他民間企業	20(31.0)	50(39.5)	12(11.3)	43(22.1)
國營企業	2 (5.0)	3 (4.2)	4(27.0)	4(21.1)

註 : 괄호안 數字는 50大 및 100大 企業의 雇傭 또는 出荷額中에서 各區分別 企業群의 占有率.

2. 産業別 集中率

總括集中率은 經濟力의 集中을 측정함에 비하여 産業別集中率(industrial concentration ratio)은 해당 産業의 市場構造를 나타낸다[8]. 産業別 集中率은 어느 한 視點에서 관찰하기보다는 두 視點間의 변화를 고려한다면 좀 더 의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 목적을 위하여 細細分類産業基準으로 1970年과 1977年을 對比하되 兩年度의 産業分類를 1970年 基準으로 조정하며 兩年度間에 對應關係가 없는 31個 産業과 其他類 産業에서 産業性格이 크게 변모하여 비교의 의의가 없는 28個 産業을 제외한 213個 産業을 대상으로 한

7) 1977年度 製造業部門의 出荷額 順位로 결정하였음.
8) 産業別 集中率은 上位 3個業體 集中率(CR_3)을 이용함.

다. 제외된 59個의 産業은 數的 比重은 크지만, 이들이 製造業의 出荷와 雇傭에서 차지하는 占有率은 각각 1970年에 4%와 12%, 1977年에는 5%와 10%에 불과하므로 趨勢分析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을 적용하여 〈表 6〉에 要約된 出荷集中率 階層別 變化를 본다면, 일반적으로 高集中産業의 저하와 低集中 産業의 상승을 특징으로 指摘할 수 있다. 즉, 出荷額基準 集中率이 60% 이상되는 産業數가 1970年의 105個에서 1977年의 94個로 감소되었으며 이들의 出荷額占有率도 52.8%에서 41.1%로 저하하였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高集中産業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出荷額占有率이 여전히 40%를 초과한다는 것은 獨寡占 問題의 중요성이 상존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거꾸로 産業別集中率의 變化値를 조사하여 보면, 1970年의 集中率보다 5%「포인트」 이내로 증가한 것이 21個, 5%「포인트」 이상 증가한 것이 64個이며, 5%「포인트」 이내로 감소한 것은 30個, 5%「포인트」 이상 감소한 것은 98個로서, 결국 5%「포인트」 이내에서 변화한 産業은 51個임에 비하여 增減의 絶對値가 이보다 큰 産業은 162個에 달하고 있으므로, 1970年代의 급격한 産業構造의 변화에 따라 각 産業의 市場構造의 양상이 크게 달라진 것을 알 수 있다.

〈表 6〉 出荷集中率 階層別 産業數 및 出荷額占有率分布

集中率(%)	産業數		出荷額占有率	
	1970	1977	1970	1977
80～100	58	49	24.3	27.5
60～ 80⁻	47	45	28.5	13.6
40～ 60⁻	56	64	22.4	31.0
20～ 40⁻	39	41	16.0	18.6
0～ 20⁻	13	14	8.8	9.3

3. 總平均集中率

위에서 관찰한 바와 같은 다양한 産業別 集中率變化를 포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는 平均集中率(average concentration ratio)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平均으로는 單純平均과 加重平均의 두 가지를 채택하며, 産業의 형태에 따른 차이를 檢出하기 위하여 對象産業을 生産財와 消費財産業으로 나누고 後者는 다시 耐久財와 非耐久財로 양분하였다[9].

〈表 7〉 加重平均 및 單純平均 出荷集中率

産業形態	加重平均出荷集中率										單純平均出荷集中率		
	$CR_3^{S,70}<60\%$			$CR_3^{S,70}\geq 60\%$			全産業						
	産業數	1970	1977	産業數	1970	1977	産業數	1970	1977	△	1970	1977	△
生産財産業	57	37.1	42.8	61	86.2	71.4	118	62.7	59.6	−3.1	63.5	57.7	−5.8
消費財産業	51	35.4	39.6	44	81.8	74.4	95	53.2	52.8	−0.4	59.2	58.4	−0.8
耐久財	29	36.0	39.8	20	83.0	53.0	49	45.3	43.5	−1.8	58.8	54.0	−4.8
非耐久財	22	34.9	39.2	24	81.5	87.1	46	57.8	62.6	4.8	59.6	63.3	3.7
全産業	108	36.2	41.2	105	84.6	72.2	213	58.5	57.0	−1.5	61.6	58.0	−3.6

註：加重値는 各産業의 年度別 出荷額.

9) 이러한 分類에는 統一된 基準이 없으므로 筆者는 『産業聯關分析表』(韓國銀行)와 『産業生産年報』(經濟企劃院)의 方法을 중심으로 分類하였음.

이에 따라 〈表 7〉에 收錄된 결과를 보면, 먼저 加重平均集中率과 單純平均集中率이 各 分類別로 같은 趨勢를 나타내므로 產業別加重値의 차이로 인한 攪亂效果가 적다는 것을 안다. 다음으로 1970年의 集中率이 60% 미만인 低集中產業의 平均集中率은 상승하고 당시의 高集中產業의 集中率은 일반적으로 하락하였으므로 앞서 본 〈表 6〉의 결과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生產財 產業의 平均集中率이 감소한 것은 1970年代 後半에 본격화한 重化學政策에 따라 새로운 業體가 다수 등장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消費財 產業의 平均集中率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으므로 이 部門은 生產財 產業에 비하여 成熟段階에 있는 安定的 市場構造를 유지한다고 보겠지만, 이를 세분하면, 耐久性 消費財 產業은 統計的 有意性은 적지만 약간의 集中率 저하를 나타낸 반면, 非耐久性 消費財 產業은 集中率이 有意性있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세의 원인을 모색한다면, 耐久性 消費財는 衣服·家電製品 등 비교적 成熟度가 높고 輸出指向的인 產業임에 비하여 非耐久性 消費財는 飮·食料品처럼 주로 內需指向的이며 商品多樣化와 廣告集約度가 높아 上位業體群의 市場支配力을 증대시키기가 용이하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4. 非對稱度

上位 3個企業集中率(CR_3)은 企業間의 規模差異를 무시하므로 集中의 高低는 측정할 수 있지만 같은 수준의 集中率에서도 上位企業間의 相對的 規模가 다름에 따라 市場構造의 성격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포착할 수 없다. 이러한 上位企業間의 規模差異를 하나의 指數로 표시하기 위하여 Shepherd(1960)는 不均等指數(index of disparity)를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다음과 같이 定義된다.

$$D=\frac{\sum_{i=1}^{n}|S_i-\bar{S}|/n}{0.1\bar{S}} \quad \cdots\cdots(1)$$

여기서, n : 考慮對象의 上位企業數

S_i : i 번째 企業의 市場占有率

$\bar{S}$: n 個企業의 單純平均 市場占有率

그러나 이 指數는 직감적으로 이해하기에 어려우며, 더우기 上位 3個企業만을 대상으로 하면 CR_3를 알고 있을 때 上位 2個企業間의 規模差異만을 파악하여도 第3位企業의 相對

〈表 8〉 出荷集中率 階層別 上位 2大企業體의 出荷非對稱度

S_1/S_2 \ CR_3^s	0~20⁻%		20~40⁻%		40~60⁻%		60~80⁻%		80~100%		計	
	1970	1977	1970	1977	1970	1977	1970	1977	1970	1977	1970	1977
1.0~1.5⁻	7	11	19	25	21	25	14	12	10	11	71	84
1.5~2.0⁻	1	1	9	5	12	13	11	6	10	10	43	35
2.0~2.5⁻	2	2	6	3	7	3	4	9	6	1	25	18
2.5~3.0⁻			6	1	7	6	3	2	5	3	15	12
3.0~4.0⁻			1	2	3	5	4	2	2	2	10	11
4.0~5.0⁻			2	1	3	4	2	7	4	3	11	15
5.0⁺			1	2	3	6	8	3	17	18	29	29
計	10	14	38	39	56	62	46	41	54	48	204	204

註 : 比較對象產業은 213個產業中 兩年度에 完全獨占이므로 S_1/S_2가 定義될 수 없는 9個產業을 제외한 209個임.

的 規模가 판명되므로, 우리는 1位企業의 2位企業에 대한 規模倍數를 非對稱度(degree of asymmetry)로서 채택하며, 이를 1970年과 1977年의 出荷額集中率 階層別로 구한 결과는 〈表 8〉에 要約되어 있다.

이 表를 검토하여 보면, 集中率이 낮을수록 上位 2大企業間의 規模隔差가 적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즉, S_1/S_2가 1.5 미만인 産業數의 비중은 集中率이 높을수록 저하하여, 예컨대, 1977年을 보면 CR_3^s가 20% 미만인 14個 産業中 11個에 있어서 S_1/S_2가 1.5 미만인 반면, CR_3^s가 80% 이상되는 48個 産業에서는 S_1/S_2가 1.5 미만인 것이 11個에 불과하다. 바꾸어 말하면 集中率이 높을수록 S_1/S_2가 상승하는 경향을 가져 非對稱度가 5.0 이상인 産業 29個중에서 18個의 CR_3^s는 80% 이상이다.

이 결과가 함축하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高集中産業에서는 壓倒的 市場位置를 갖는 企業이 존재하므로 準獨占 내지 極高位 寡占의 構造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비록 集中率이 높더라도 上位企業間의 市場位置가 대등하다면 市場構造上으로는 競爭의 潛在的 可能性이 많겠지만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러한 可能性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兩年度를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上位 2大企業間의 規模隔差가 축소되는 경향을 관찰하게 되는바, S_1/S_2가 1.5 미만인 産業數는 71個에서 84個로 증가한 일면 S_1/S_2가 1.5 이상 3.0 미만인 産業數는 83個에서 65個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경향은 上位 2大企業間의 競爭構造가 다소 향상되고 있다는 것을 부분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企業規模와 規模의 經濟와의 관계이다. 일반적으로 다른 條件이 같다고 할 때, 第1位企業의 第2位企業에 대한 出荷額 倍數가 雇傭倍數보다 적다면, 第1位企業이 規模의 經濟를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며 生産의 效率性을 거두지 못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데, 母資料를 보면 이러한 産業이 1970年에 91個, 1977年에 75個에 달하고 있다. 觀點을 바꾸어 第1位 出荷企業이 동시에 第1位 雇傭企業인 産業은 1977年에 130個이며, 이중에서 第2位 出荷企業이 第2位 雇傭企業인 産業은 67個에 불과하며 더우기 出荷額倍數가 雇傭倍數보다 큰 産業은 31個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第1位 雇傭企業이 年度中의 新設企業이거나 또는 나머지 企業에 비하여 資本集約度가 낮으며 勞動生産性이 우월하지 못하다는 등과 같은 現實的 可能性을 고려하더라도 이의 결과는 「規模의 經濟」라는 假說을 支持하지는 않는다. 또한 上位2大企業間의 出荷와 雇傭의 순위를 무시하더라도 2大 出荷企業과 2大 雇傭企業이 같은 産業은 92個밖에 되지 않으므로 좀더 정밀한 분석을 시도하지 않아도 企業規模(雇傭基準)가 클수록 規模의 經濟가 실현된다는 命題를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5. 商品市場構造

市場構造를 理論的으로 분류하는 것 자체가 論爭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10], 우리는 獨占, 複占, 寡占, 競爭으로 분류하며 이와 같은 分

10) 獨占的 競爭(monopolistic competition)이 獨立的인 市場類型으로 분리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Chicage 學派와 Chamberlin 學派 사이의 論爭이 있지만 本稿에서는 이를 무시함. 이에 관한 代表的인 論議는 Archibald(1961, 1963)과 Stigler(1963) 참조.

類基準을 설정함에 있어서 需要나 供給의 彈力性보다도 市場內 企業의 相對的規模를 고려하는 입장을 취한다. 企業體數도 市場構造를 결정하는 중요한 要因이지만, 企業體數가 많더라도 最大企業이 壓倒的 市場位置를 보유하는 반면 다수의 餘他企業들이 限界的 位置밖에 유지하지 못한다면 市場은 사실상 有效獨占狀態가 되므로 企業體數는 上位企業과 餘他企業間의 相對的 規模를 결정한다는 간접적 측면에서만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外國에서 사용되는 分類方法과 달리[11], 우리가 獨占과 複占을 따로이 고려하는 것은 우리나라에는 아직 市場規模가 협소하여 실질적으로 1個 내지 2個의 企業만을 수용할 수 있는 商品市場이 많으므로 이들을 전형적인 寡占과 함께 묶는다면 分類 자체의 의의가 적어지기 때문이다.

아래에서 시도하는 市場分類는 構造的 性格에 중점을 두므로 上位企業群의 市場占有率과 上位企業間의 規模差異를 기준으로 하지만 정확한 區分點을 적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때때로 筆者의 판단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게 되어 恣意性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一般的 分類基準은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獨占 : $CR_1^S \geq 80\%$, $S_1/S_2 \geq 10.0$

複占 : $CR_2^S \geq 80\%$, $S_1/S_2 < 5.0$, $S_3 < 5.0\%$

寡占 : $CR_3^S \geq 60\%$(獨占과 複占은 제외)

競爭 : $CR_3^S < 60\%$

이러한 基準을 중심으로 1970年과 1977年의 市場構造를 분류한 결과는 〈表 9〉에 정리되어 있다. 여기서 주요한 특징으로 抽出할 수 있는 것은 各類型別 商品數의 構成比에 有意性있는 변동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市場構造의 競爭度가 높을수록 商品數의 構成比보다 出荷額의 構成比가 커진다는 결과를 얻게 되는데, 예로써, 1977年을 調査한다면, 獨占商品의 數 및 出荷額構成比는 각각 31.6%와 16.3%인

〈表 9〉 商品市場構造

市場類型 / 年度	獨占		複占		寡占		競爭		計	
	商品數	出荷額	商品數	出荷額	商品數	出荷額	商品數	出荷額	商品數	出荷額
1970	442 (29.6)	110 (8.7)	279 (18.7)	204 (16.3)	495 (33.2)	439 (35.1)	276 (18.5)	498 (39.9)	1,492 (100.0)	1,252 (100.0)
1977	667 (31.6)	2,264 (16.3)	425 (20.1)	1,536 (11.0)	674 (32.0)	4,716 (33.9)	343 (16.3)	5,404 (38.8)	2,109 (100.0)	13,920 (100.0)
0～ 10億원⁻	477 (43.3)	83 (28.2)	274 (24.9)	75 (25.4)	303 (27.5)	115 (39.0)	48 (4.4)	22 (7.5)	1,102 (100.0)	295 (100.0)
10～ 50億원⁻	107 (19.7)	241 (18.2)	89 (16.2)	199 (14.9)	228 (41.6)	565 (42.3)	124 (22.6)	332 (24.8)	548 (100.0)	1,337 (100.0)
50～100億원⁻	43 (24.6)	306 (27.3)	21 (12.1)	144 (12.9)	54 (30.9)	239 (21.4)	57 (32.6)	430 (48.4)	175 (100.0)	1,119 (100.0)
100億원⁺	40 (14.1)	1,634 (14.6)	41 (14.4)	1,118 (10.0)	89 (31.3)	3,797 (34.0)	114 (40.1)	4,620 (41.4)	284 (100.0)	11,169 (100.0)

註 : 1) 出荷額 單位는 經常 10億원.
2) 괄호안 數字는 占有率(%).
3) 1977年 以下의 內譯은 同年度의 市場類型을 出荷額區分別로 再分類한 것임.

11) 拙著(1977), p.87～89.

것에 반하여 競爭商品의 해당되는 構成比는 각각 16.3%와 38.8%가 된다. 이것은 다시 말하여 競爭商品의 市場規模가 크다는 것을 뜻하는데, 1977年에 市場規模가 10億원 미만인 1,102個의 商品 가운데 獨占 및 複占商品數는 68.1%이며 競爭商品數는 4.4%에 불과하지만, 거꾸로 市場規模가 100億원 이상되는 284個 商品에 있어서는 獨占 및 複占商品이 28.5%이고 競爭商品이 40.1%에 달한다는 사실로써 例示되고 있다.

이것은 理論的으로 볼 때 市場規模가 적으면 獨占과 같은 高集中型 構造를 갖게 되지만 市場規模가 클수록 競爭이 용이하다는 一般的 結論과 부합한다. 물론 競爭型 市場에서는 定義上 企業數가 많으므로 "다른 조건이 같다면" 市場規模가 크겠지만 우리의 市場分類에서는 企業體를 직접적으로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이것이 해당되지 않으며, 더우기 論理的으로도 市場構造가 市場規模를 결정한다는 逆關係는 타당성이 적다.

1977年의 商品數는 1970年에 비하여 617個가 증가하였는데, 各類型別 增分을 보면, 獨占 225個, 複占 146個, 寡占 179個, 競爭 67個로서, 이중에는 商品의 分割分類에 따른 것도 있지만 대체로 新規商品일 경우에는 원초적으로 獨占이 형성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 表에서 보면 獨寡占商品이 總出荷額의 61.2%를 점유하지만 商品數에 있어서는 83.7%에 해당하므로 獨寡占이 문제로 대두되는 점은 規模에도 있지만 특히 個別商品市場에서 惹起시키는 價格構造의 歪曲化 등 非效率性에 있다고 할 수 있다.

1977年의 出荷額 100大商品은 〈附表 2〉와 같으며 이들이 製造業 總出荷額에서 점유하는 構成比는 55.9%에 이르고 있다. 그 內譯을 보면 競爭商品이 38個로서 100大商品 總出荷額의 37.9%를 점유하여 市場規模가 클수록 競爭商品일 경우가 많다는 앞의 결론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이 表에서 보면, 競爭商品의 15個, 寡占商品의 16個, 複占商品의 13個, 獨占商品의 8個가 生產財이므로 集中率이 높을수록 生產財가 많은 것을 알게 된다.

Ⅳ. 財　閥

1. 財閥의 規模

앞서 指摘한 바 있듯이, 여러 개의 企業이 동일한 所有關係 아래서 經營되는 財閥이 있게 되면, 실제의 經濟力 集中은 단순한 集中率이 표시하는 것보다 높게 된다. 財閥의 生成過程과 그것이 國民經濟에 미치는 영향은 資本主義의 전개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며[12] 市場秩序的 側面에서도 여러가지 난점을 제기하지만 이것은 별도로 다루어야 할 문제이고[13], 아래에서는 우리나라 財閥의 構造的 現況만을 調査하기로 한다. 여기서 對象으로 하는 30大財閥은 1977年의 製造業部門 出荷額 順位로 選定하였으므로 다른 部門의 財閥은 제외되었으며, 또한 이들의 非製造業部門 活動도 고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12) 이에 관한 최근의 一般的 論議는 Leff(1979)를 참조. 司空壹(1980)은 우리나라의 46大 財閥에 의한 經濟力의 集中과 經濟成長과의 관계를 검토하였지만, 本稿에서는 財閥의 生成過程보다도 商品市場에 있어서 財閥들이 갖는 市場力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좀 더 微視的인 接近方法을 채택함.

13) 筆者의 近刊豫定, 『獨寡占規制와 公正去來政策』.

우리나라의 財閥은 과거에 政府의 經濟成長 政策에 힘입어 그 規模를 확장시켜 왔는데 이들의 全産業分野에 걸친 企業結合의 추이는 〈表 10〉과 같다[14]. 즉, 30大財閥은 지난 5年間 系列企業數를 2倍로 증가시킨 결과 현재 財閥當 平均 20個의 系列企業을 거느리고 있으므로 우리는 財閥問題의 심각성을 즉시 간파할 수 있다.

製造業部門에만 국한하여 본다면, 30大財閥은 337個의 企業(事業體로는 497個)을 보유하여 出荷額, 附加價値, 雇傭의 각각 34.1%, 31.6% 및 20.5%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의한 經濟支配力이 대단히 높은 수준에 있으며, 특히 上位 5大財閥은 압도적 위치를 가져 出荷額, 附加價値, 雇傭에서 각각 15.7%, 14.5%, 9.1%를 차지하고 있다.

〈表 10〉 30大財閥의 全産業部門 企業結合

1974年 系列企業數	1975~79年間 企業結合				財閥內合併, 賣却	1980年 系列企業數
	新設	引受	合併	合作		
304	152	173	13	17	38	608

2. 財閥의 多邊化

財閥은 多數企業의 複合體(conglomerate)이므로 系列企業의 數와 産業性格에 따라 財閥의 多邊化(diversification)한 정도를 側定할 수 있다. 多邊化를 側定하는 指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흔히 사용되는 것으로는 아래의 네 가지가 있다.

① 出荷 商品數 또는 參與 産業數 : 이것은 絶對數에 의존하므로 商品間 또는 産業間의 相對的 比重을 무시하게 된다.

② 主産業特化度의 逆數(reciprocal of industry specialization: *RIS*): 이 指數도 앞의 것과 같이 財閥活動의 規模分布를 고려할 수 없는 결점을 갖고 있다.

③ Herfindahl 指數의 變型(H^*) : Herfindahl 指數(H)를 多邊化 指數로 활용하면 參與産業間의 相對的 規模가 參與産業數보다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볼 때 參與産業의 規模分布를 파악하게 하는 利點이 있다[15]. 그러나 이 指數는 規模分布가 균등할수록 그 값이 적어지는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指數値가 클수록 多邊化 程度가 큰 것을 나타내게 하기 위하여

$$H^*=1-H \quad \cdots\cdots(2)$$

로 변형하여 이용한다.

④ 重力指數(gravity index: G) : 이것은 H 指數의 屬性과 財閥의 參與産業數間의 非類似性을 결합하려는 것으로서, H指數를 변형하여 관계가 먼 産業일수록 加重値가 크게끔 調整한 것이다[16]. 즉, 財閥總出荷額中 産業 i의 占有率을 Z_i, 産業 i와 産業 j의 거리를 d_{ij}로 하면, 重力指數는

$$G=\sum_{i=1}^{n}\left[Z_i\sum_{j=1}^{n}d_{ij}(Z_j)\right] \quad \cdots\cdots(3)$$

로 정의된다. 그러나 이 指數가 사용하는 加

14) 〈表 10〉의 資料는 本硏究院의 李在享, 徐鎭敎, 姜聲潤 세 硏究員이 調査·整理한 것임.

15) H 指數는 원래 市場構造指數로서 고안된 것인데, n 個의 企業이 있는 市場에서 i 번째 企業의 市場占有率을 S_i로 되면,

$$H=\sum_{i=1}^{n}S_i^2$$

16) Honeycutt-Zimmerman(1976)에 의하면 加重値는 다음과 같은 方法으로 결정된다.

産 業 i :	31111	31111	31111	31111	31111
産 業 j :	31111	3111x	311xx	31xxx	3$xxxx$
加重値(d_{ij}) :	0	1	2	3	4

重値는 産業分類에 의존하므로 分類體系에 내재된 난점이 그대로 移延되어 있다.

이상의 指數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30大財閥의 多邊化를 특정하면, 먼저 이들은 平均的으로 18個의 細細分類産業에 참여하여 32個의 商品을 出荷하므로 일견 多邊化 程度가 높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參與産業間의 相對的 規模를 고려하는 나머지 3個 指數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 이들 指數는 각각 屬性이 다르므로 각 指數가 결정하는 多邊化度의 순위가 다르게 마련인데 〈表 11〉에 정리된 指數別 財閥의 多邊化 順位에는 큰 차이가 없다[17]. 이것은 근본적으로 거의 모든 財閥에 있어서 主産業의 比重이 크고 副産業과의 關聯性이 크다는 것을 함축하는데, 이러한 특징은 *RIS*를 비교하면 명백하게 된다.

30大財閥의 *RIS*를 산출한 결과, 單純平均은 1.66, 標準偏差는 0.58이며, 指數의 分布에 있어서는 *RIS*가 1.5 미만인 財閥이 14個, 1.5 이상 2.0 미만이 10個, 2.0 이상 3.0 미만이 5個, 3.0 이상은 1個이므로, 결국 우리나라의 財閥은 主宗産業의 비중이 절대적인 一邊的(monolithic) 複合企業이라고 특징지을 수 있으며, 따라서 財閥規模의 원천은 다수의 産業에 참여한 것에 있지 않고 主宗産業의 規模와 市場占有率에 있다고 하겠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多邊化度와 財閥規模와는 相關關係가 없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본 順位間의 相關係數(rank correlation coefficient)는 0.32에 불과하다. 이 결과에서 우리가 誘導할 수 있는 假說은, 多邊化度가 상대적으로 높은 下位財閥은 參與産業의 성장에 따라 다른 조건이 같다면, 多邊化度가 낮은 中位나 上位財閥들에 비하여 規模擴張이 빠를 것이므로 財閥間의 相對的 規模에는 앞으로 변화가 클 것이라는 것이다.

〈表 11〉 30大財閥의 多邊化 順位

多邊化指數	多 邊 化 順 位
RIS	3, 5, 20, 4, 16, 18, 14, 1, 21, 10 11, 29, 2, 9, 26, 25, 28, 17, 15, 27 6, 30, 7, 24, 8, 12, 19, 23, 13, 22
*H**	3, 5, 20, 4, 16, 18, 14, 1, 10, 11 21, 9, 29, 2, 26, 28, 25, 15, 17, 27 6, 30, 7, 24, 8, 12, 19, 23, 13, 22
G	3, 4, 20, 5, 14, 10, 18, 11, 21, 1 28, 16, 9, 15, 29, 2, 26, 17, 27, 25 7, 24, 30, 8, 6, 23, 13, 12, 19, 22

註 : 30大 財閥은 財閥의 固有名稱 대신에 財閥의 規模順位로서 表記함. 따라서 예컨대 "3"으로 指稱된 財閥의 경우는 出荷額規模 3位의 財閥이 多邊化 順位는 1位라는 것을 나타냄.

17) *RIS*는 小分類, *H**와 *G*는 細細分類基準으로 算出함.

3. 財閥의 參與産業과 市場力

30大財閥의 産業參與度를 小分類産業基準으로 정리하면 〈附表 3〉과 같다. 總 411個의 細細分類産業中 217個의 産業에 참여하는데, 小分類産業別로 參與産業數가 많은 것은 纖維, 電氣機械, 食料品, 機械 등이며, 商品基準으로는 2,118個의 製造業 商品 가운데 578個의 市場에 出荷하며, 出荷商品數가 많은 産業은 電氣機械, 纖維, 機械, 第1次鐵鋼 등이다.

이들 財閥의 出荷額占有率이 높은 産業은 運輸裝備, 木材品, 고무製品, 其他 非鐵金屬鑛物製品, 組立金屬製品 등인데 이러한 결과는 商品을 基準으로 하여도 차이가 없다. 財閥의 市場占有率은 이들이 실제로 참여하는 商品市場만을 대상으로 하면 44.7%가 되어 製造業 全體에 대한 占有率 34.1%보다 훨씬

높게 된다. 參與財閥數가 많은 産業은 纖維, 組立金屬製品, 機械, 衣服, 産業用化學物, 電氣機械 등이며, 30大財閥의 總出荷額에서 各 産業이 차지하는 構成比로 보면, 纖維, 運送裝備, 石油精製, 電氣機械, 第1次鐵鋼, 食料品 등의 순서가 된다.

이상의 관찰을 1974年의 것과 비교하면[18], 纖維를 우리나라 財閥의 主産業으로 代表할 수 있는 점에는 변함이 없지만 化學, 鐵鋼, 金屬, 機械 등 重化學産業分野에 이들의 參與度가 증가하였다는 것을 指摘할 수 있다.

위에서는 30大財閥을 하나의 集團으로서 이들의 전체적 성격을 조사하였지만 財閥問題의 다른 중요한 측면은 財閥이 개별적으로 各 商品市場에서 保有하는 市場力(market power)이다. 먼저 市場占有率(market share)의 觀點에서 보면 〈表 12〉에서와 같이, 어느 한 財閥의 占有率이 60% 이상되는 商品은 30大財閥이 出荷하는 延 968個 중에서 140個로 전체의 26.2%에 불과하다. 또한 財閥別 加重平均 市場占有率의 分布는 10% 미만의 財閥이 6個, 10~20%가 14個, 20~30%가 8個, 30% 이상이 2個이므로 占有率로 보면 財閥의 個別的 市場力은 크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市場力을 좀더 정확하게 測定하려면 占有率보다도 市場位置(market position)를 나타내는 占有率의 順位가 타당할 것이다. 〈表 12〉를 다시 보면, 어느 한 財閥이 市場에서 1位를 占有하는 商品이 314個로서 전체의 32.4%이고 3位까지의 商品은 595個로 61.5%에 해당하므로 財閥의 市場力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表에서 찾을 수 있는 또 다른 특징은 高集中商品數의 비중과 市場占有率이 財閥의 규모와 관계없이 분포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下位財閥들도 다수의 商品市場에서 獨寡占的 位置를 保有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또한 財閥間의 競爭이 활발하지 못하다는 것을 示唆하고 있다.

4. 財閥間의 市場競爭

이제까지 調査한 우리나라 30大財閥의 特徵을 要約한다면 財閥에 의한 高度의 經濟力 集中, 企業結合을 통한 財閥規模의 擴大, 낮은 수준의 多邊化, 商品市場에 있어서의 獨寡占的 位置라고 하겠다. 財閥의 規模가 크더라도 財閥 相互間에 競爭關係가 普遍的으로 존재한다면 財閥에 의한 獨寡占的 市場力을 상당히

〈表 12〉 30大財閥의 市場力

財閥順位	出荷商品數	市場占有率別商品數					市場占有率 順位別 商品數			
		0~20-%	20~40-%	40~60-%	60~80-%	80~100%	1位	2位	3位	小計
1~10	498	300	80	46	23	49	158	88	51	297
11~20	287	176	45	23	14	29	93	54	35	182
21~30	183	105	28	25	8	17	63	32	21	116
計	968	581	153	94	45	95	314	174	107	595

註：商品數는 財閥別 該當商品數의 單純合計이므로 같은 商品이 重複計算된 것도 있음. 財閥을 10個씩 묶은 것은 個別財閥別로 하더라도 전체적 특징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번잡을 피하기 위한 것임.

18) 拙著(1977), p.5.

완화시킬 수 있지만, 各財閥이 全體市場을 商品別로 分占하고 있다면 그러한 可能性마저도 없어지게 된다.

〈表 13〉에서 보면, 30大財閥이 다소간에 出荷하는 578個 商品의 65%인 375個의 市場에서는 財閥間의 競爭이 없으며 이들 商品은 30大財閥 總出荷額의 27.3%에 해당한다. 또한 財閥들의 市場占有率 合計가 40% 미만인 商品은 333個인 반면 總出荷額에서는 18.7%를 占有하고 있으므로, 30大財閥은 出荷商品의 57.6%에 있어서 財閥間보다는 餘他企業들과 競爭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商品이 財閥의 활동에서 갖고 있는 比重은 미미한 것이다. 관점을 바꾸어 보면, 2個 이상의 財閥이 참여하면서 이들의 市場占有率이 40% 이상인 商品은 96個로 全體出荷商品의 16.6%에 머물고 있지만 財閥 總出荷額의 59.3%에 해당한다. 즉, 商品市場에 있어서 財閥間의 競爭이 적은 반면[19] 競爭關係가 존재하는 市場은 大規模市場이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추출할 수 있는 政策的 結論은, 첫째, 財閥은 多數의 市場에 있어서 餘他의 財閥이나 獨占企業에 대하여 壓倒的 市場位置를 갖고 獨占的 孤立地帶(monopolistic enclave)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市場에 대하여는 他企業에 대한 進入障壁(barriers to entry)을 구축하지 않게끔 해야 되며, 둘째, 1個의 財閥만이 參與하되 그 市場占有率이 낮은 것이 많은데(예로써, 40% 미만인 것은 226個) 이 경우에 財閥은 他市場의 系列企業에 集積된 經濟力을 이용하여 市場支配를 도모할 수 있으므로 橫的補助(cross subsidization)와 價格 및 利潤壓搾(squeeze)을 배제해야 하며, 세째, 財閥間의 競爭關係가 있는 市場은 少數이지만 그 規模가 크므로 오히려 財閥間의 交互購入(reciprocal buying)이나 談合(collusion)을 통하여 다른 企業에 대하여 市場封鎖(foreclosure)를 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이러한 市場의 硬直化를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表 13〉 30大財閥間 競爭度

競爭關係 財閥數	商品數	參與財閥의 市場占有率 合計				
		0~20-%	20~40-%	40~60-%	60~80-%	80~100%
1	375 (27.3)	161(2.4)	65 (2.8)	36 (3.2)	32 (3.8)	81(15.1)
2	116 (17.2)	45(1.1)	20 (2.7)	24 (5.0)	12 (3.6)	15 (4.8)
3	60 (35.8)	13(2.1)	14 (2.9)	13(10.7)	4 (4.2)	16(15.8)
4	18 (9.3)	4(0.3)	4 (1.2)	3 (1.0)	5 (6.2)	2 (0.6)
5	4 (1.1)	1(0.0)	3 (1.1)			
6+	5 (9.3)	1(0.6)	2 (1.4)	1 (1.9)	1 (5.4)	
計	578(100.0)	225(6.6)	108(12.1)	77(21.8)	54(23.2)	114(36.4)

註 : 괄호안 數字는 該當商品의 出荷額 合計가 30大財閥의 總出荷額에서 차지하는 構成比(%).

19) 〈表 13〉에서 어느 한 財閥의 占有率이 5%에 미달할 경우, 이것을 競爭關係財閥數에서 제외시키면 다음과 같게 되므로 이 結果는 한층 뚜렷해진다.

競爭關係財閥數	1	2	3	4	計
商品數	381	73	27	2	483

끝으로, 多數의 財閥이 참여하는 商品과 財閥數를 보면 다음과 같다. 普通外衣(11), 合成纖維 紡績絲(11), 鑄型(7), 純綿絲(6), 合成纖維織物(6), 와이셔츠(5), 羅王木材·角材(5), 羅王木材·板材(5), 라디오·TV 및 其他音響裝置部品(5) 등으로서 앞서 검토한 〈表 13〉의 결과와 같으며, 우리나라 財閥中 多數가 纖維, 衣類, 電子產業을 母體로 한다는 일반적 인식과 부합한다.

V. 結　　言

이제까지 우리는 1970年과 1977年의 두 해를 중심으로 製造業部門의 成長過程과 이에 따른 產業組織의 변화 및 그 특징을 檢討하였는데 政策的 觀點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결과를 간략히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製造業은 1970年代에 고도의 성장을 달성하였지만, 企業體數에 있어서는 별다른 증가가 없었으므로 결국 企業의 大型化를 통하여 이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필연적으로 小企業의 상대적 정체를 誘發하였지만, 동시에 中規模 내지 準大規模 企業의 比重을 높여 集中率은 다소 저하하였다. 그렇지만 1977年의 50大企業이 製造業 總出荷의 29.4%를 차지하며, 產業別로 보더라도, 213個 細細分類產業 가운데 94個는 上位 3個企業의 出荷占有率이 60% 이상되며 製造業全體의 上位 3個企業 加重平均 出荷集中率은 41%에 달하므로 產業組織은 여전히 高集中狀態에 머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高集中이 規模의 經濟에 따른 자연적 현상이라면 論理的 妥當性의 여부를 떠나서 일단 獨占不可避論에 근거를 줄 수 있겠지만 1977年의 資料를 보면 그러한 論據가 희박하다.

우리나라 製造業의 高集中現象은 商品市場을 관찰대상으로 하면 더욱 명백하게 된다. 즉, 2,109個의 商品中 83.7%에 해당하는 1,766個가 獨寡占 商品이며 이들의 出荷額도 製造業 總出荷額의 61.2%에 달하고 있다. 더우기 이러한 商品市場의 構造는 1970年에 비하여 統計的 有意性은 적지만 다소간에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新規商品은 최소한 원초적으로 獨占을 享有한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獨寡占構造의 恒續性이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또한 個別市場이나 產業의 獨寡占을 초월하여, 財閥이라는 거대한 經濟力의 結集體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 30大財閥은 1975年 이래 系列企業數를 倍加하여 현재 財閥當 20個(製造業部門에는 11個)의 企業을 保有하며, 製造業 總出荷額의 34.1%, 出荷商品市場의 44.7%를 점유하는데, 이들이 出荷하는 968個의 延商品數中에서 595個에 있어서는 어느 한 財閥의 市場位置가 3位 이내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30大財閥은 總體的인 經濟力뿐만 아니라 個別商品市場의 支配力도 크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비록 財閥의 규모가 크더라도 財閥間의 競爭이 치열하다면 財閥의 市場效果가 상당히 완화되겠지만, 이들이 참여하는 578個 商品市場 가운데 375個는 하나의 財閥만이 出荷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財閥은 대체로 商品別로 市場을 분할하여 獨占力을 증대시키면서 經濟力을 확장시켜 온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製造業部

門의 産業組織은 獨寡占的 市場構造와 財閥의 經濟力集中이라는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다. 이것은 産業資本主義의 發展過程에서 흔히 관찰되는 현상인데 그러한 추세가 방치된다면 궁극적으로 資本主義體制의 基底마저도 잠식하기 때문에 이의 規制가 필요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종래 産業組織의 최종결과인 價格은 規制하였지만 그 實效가 없으므로 企業結合과 같은 構造的 原因을 직접 規制해야 하며 現行 公正去來法은 이러한 방향으로 改定되어야 할 것이다.

〈附表 1〉 小分類 産業別 業體數·雇傭·出荷額 趨移

(단위 : 業體數=個, 雇傭=千名
出荷額=經常價格 10億원)

小分類産業	業體數		雇傭		出荷額	
	1970	1977	1970	1977	1970	1977
食料品	3,351(13.9)	2,891(10.8)	76.2 (8.8)	128.2 (6.7)	144.0(11.0)	1,418.8 (9.3)
飮料品	1,796 (7.4)	1,211 (4.5)	30.2 (3.5)	26.0 (1.4)	79.3 (6.1)	501.4 (3.3)
담배	9(0.04)	23 (0.1)	11.0 (1.3)	15.0 (0.8)	69.3 (5.3)	497.7 (3.3)
纖維	2,923(12.1)	4,176(15.6)	207.2(24.1)	402.6(20.1)	192.7(14.7)	2,102.1(13.8)
衣服	3,050(12.6)	2,777(10.4)	52.4 (6.1)	208.3(10.9)	46.0 (3.5)	794.3 (5.2)
가죽및毛皮製品	95 (0.4)	346 (1.3)	3.4 (0.4)	26.9 (1.4)	2.9 (0.2)	175.9 (1.2)
가죽신	325 (1.3)	192 (0.7)	4.5 (0.5)	20.0 (1.0)	3.6 (0.3)	97.7 (0.6)
製材및木製品	1,109 (4.6)	1,282 (4.8)	36.2 (4.2)	56.3 (2.9)	65.5 (5.0)	453.2 (3.0)
家具및裝置物	899 (3.7)	886 (3.3)	9.0 (1.0)	14.2 (0.7)	4.3 (0.3)	40.2 (0.3)
종이및종이製品	544 (2.3)	800 (3.0)	19.1 (2.2)	42.2 (2.2)	36.8 (2.8)	380.3 (2.5)
印刷및出版	1,184 (4.9)	1,208 (4.5)	30.3 (3.5)	42.4 (2.2)	28.0 (2.1)	196.1 (1.3)
産業用化學製品	247 (1.0)	640 (2.4)	23.4 (2.7)	41.6 (2.2)	67.8 (5.2)	749.3 (4.9)
其他化學製品	424 (1.8)	507 (1.9)	26.2 (3.0)	46.8 (2.4)	52.2 (4.0)	525.4 (3.5)
其他石油精製	17 (0.1)	43 (0.2)	3.2 (0.4)	3.9 (0.2)	83.2 (6.4)	1,317.7 (8.7)
其他石油및石炭製品	695 (2.9)	318 (1.2)	12.5 (1.5)	11.3 (0.6)	32.7 (2.5)	173.8 (1.1)
고무製品	172 (0.7)	284 (1.1)	27.3 (3.2)	98.3 (5.1)	28.8 (2.2)	415.4 (2.7)
其他 플라스틱 製品	168 (0.7)	591 (2.2)	9.0 (1.0)	36.5 (1.9)	14.2 (1.1)	212.9 (1.4)
陶磁器및土器	378 (1.6)	300 (1.1)	7.9 (0.8)	12.8 (0.7)	2.3 (0.2)	26.2 (0.2)
유리및유리製品	80 (0.3)	124 (0.5)	8.8 (1.0)	14.6 (0.8)	9.3 (0.7)	87.5 (0.6)
其他 非鐵金屬 鑛物製品	1,820 (7.5)	1,321 (4.9)	34.6 (4.0)	50.3 (2.6)	54.4 (4.2)	500.6 (3.3)
第1次 鐵鋼	259 (1.1)	438 (1.6)	26.6 (3.1)	58.3 (3.0)	61.7 (4.7)	988.5 (6.5)
第1次 非鐵金屬	85 (0.4)	226 (0.8)	4.9 (0.6)	12.7 (0.7)	10.7 (0.8)	162.3 (1.1)
組立金屬製品	1,362 (5.6)	1,584 (5.9)	35.2 (4.1)	80.3 (4.2)	32.0 (2.4)	373.3 (2.5)
機械	1,040 (4.3)	1,395 (5.2)	26.5 (3.1)	72.0 (3.7)	21.2 (1.6)	376.0 (2.5)
電氣機械器具	496 (2.1)	1,164 (4.4)	39.4 (4.6)	188.8(19.8)	53.6 (4.1)	1,151.8 (7.6)
運輸裝備	891 (3.7)	756 (2.8)	43.1 (5.0)	95.6 (5.0)	73.6 (5.6)	1,084.0 (7.1)
其他專門, 科學裝備	110 (0.5)	256 (1.0)	5.5 (0.6)	32.0 (1.7)	4.9 (0.4)	163.2 (1.1)
其他	575 (2.4)	981 (3.7)	48.2 (5.6)	81 (4.2)	31.9 (2,4)	242 (1.6)

〈附表 2〉 上位 100大商品의 市場構造

市場類型	商品數	總出荷(10億원)	商品名
獨占	9	1,088	필터 담배, 一般貨物船, 構造物, 熱延廣幅帶鋼, 重板·合金鋼, 鐵道機關車, 제트油, PVC, 폴리프로틸렌
複占	18	825	熱延簿板, 黑白 TV 受像機, 모터 가솔린, 라면, 通信線 및 케이블, 冷延廣幅帶鋼, 尿素肥料, 麥酒, 重油, 電力線 및 케이블, 自動電話交換機, 精鍊銅, 글루타민酸소다, 크라프트紙, 耕耘機, 合成纖維, 레미콘, 껌
寡占	35	2,916	방카C油, 普通시멘트, 輕油, 貨物車, 混紡合纖織物, 運動靴, 燒酒, 複合肥料, 精糖, 電氣熔接鋼管, 異型鐵筋, 乘用車, 自動車 타이어, 나프타, IC 回路, 人形, 버스, 고무장화, 밀가루빵, 트랜지스터, 家庭用冷藏庫, 混紡毛織物, 旣成服, 燈油, 비스켓, 아이스크림, 新聞用紙, 스레트, 冷延簿板, 圓型鐵筋, 潤滑油, 模造紙, 파일 및 셔닐織物, 紛乳, 유리병
競爭	38	2,947	合纖紡績絲, 合板, 配合飼料, 合纖織物, 純綿絲, 九孔炭, 밀가루, 普通外衣, 와이셔츠, 男子用外衣, 소가죽, 男子用가죽衣服, 濁酒, 플라스틱신발, 生絲, 錄音器, 골판지箱子, 브라우스, 絹織物, 冷凍물고기, 酒精, 가방, 角材(羅王木材), 綿內衣, 書籍, 핸드백, 女子用 外衣, 固定蓄電器, 角材(美松木材), 灰주물, 라디오受信器, 골판지原紙, 마닐라板紙, 日刊新聞, 抗生劑, 男子用短靴, 가발, 壁타일.

〈附表 3〉 30大財閥의 製造業市場參與度

小分類産業	細細分類産業數	財閥參與産業數	財閥出荷/産業出荷(%)	商品數	財閥參與商品數	財閥出荷/參與商品出荷(%)	參與財閥數	財閥出荷中占有率(%)
食料品	34	22	21.7	165	41	41.8	11	6.8
飮料	13	5	10.4	24	8	32.3	3	0.4
담배	2	—	—	5	—	—	—	—
纖維	37	25	29.2	158	61	39.6	16	13.5
衣服	9	7	20.8	48	25	25.9	15	3.6
가죽 및 毛皮製品	7	5	18.9	22	7	17.3	6	0.7
신발	4	2	18.9	12	4	42.2	3	0.4
나무 및 나무와 콜크製品	15	4	48.9	60	9	59.2	6	4.9
家具 및 裝置物	5	2	14.4	30	12	19.7	1	0.1
종이 및 종이製品	17	8	14.8	55	14	23.7	8	1.2
印刷 및 出版	8	2	3.8	24	3	16.8	2	0.2
産業用化學物	21	11	29.3	195	42	55.3	15	4.8
其他化學製品	26	12	21.3	107	31	33.4	9	2.5
石油精製品	3	3	38.5	24	17	46.1	6	11.2
其他石油 및 石炭製品	2	1	3.9	13	3	53.9	3	0.2
고무製品	7	4	46.4	41	13	62.9	8	4.3
달리 分類되지 않는 플라스틱製品	5	3	37.4	10	6	34.7	5	1.8
陶器, 磁器 및 土器	5	—	—	17	—	—	—	—
유리 및 유리製品	7	2	21.6	24	4	44.5	3	0.4
其他非金屬鑛物製品	16	8	45.6	55	16	55.4	6	5.0
第1次鐵鋼	8	7	34.5	95	47	46.1	7	7.5
第1次非鐵金屬	4	3	23.7	56	9	54.2	4	0.8
組立金屬製品	25	15	45.6	176	32	52.9	16	3.8
機械	35	21	20.2	294	51	32.2	16	1.7
電氣機械器具	26	22	34.6	158	73	39.1	13	8.8
運輸裝備	15	9	54.6	72	26	79.2	5	13.1
專門·科學·測定製品	19	6	7.2	75	10	30.9	7	0.3
其他	21	8	21.6	103	13	30.0	7	1.2
全製造業	411	217	34.1	2,118	578	44.7	30	100.0

▷ 參 考 文 獻 ◁

司空壹, 「經濟成長과 經濟力集中」, 『韓國開發研究』, 1980年 봄號.

李奎億, 『市場構造와 獨寡占規制』, 韓國開發研究院 研究叢書⑱, 1977.

Archibald, G.C., "Chamberlin versus Chicago", *Review of Economic Studies,* October 1961.

Bain, J. S., "Changes in Concentration in Manufacturing Industries in the United States, 1954~1966", *Review of Economic Studies,* November 1970.

Ghosh, A., "Japanese 'Zaibatsus' and Indian Industrial Houses: An International Comparison", *American Journal of Economic and Sociology,* July 1974.

Hart, P.E., "Business Concentration in the United Kingdom", *Journal of Royal Statistical Society,* Series A, Part 2, 1960.

Honeycutt, T.C. and D.L. Zimmerman, "The Measurement of Corporate Diversification: 1950~1967", *Antitrust Bulletin,* Spring 1976.

Mason, E.S., *Economic Concentration and Monopoly Problem,* Harvard University Press, 1959.

Prais, S.J., "A New Look at the Growth of Industrial Concentration", *Oxford Economic Papes,* July 1974.

Pashigian, P., "Market Concentr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Great Britain,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October 1969.

Pryor, F.L.,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Concentration Ratio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May 1972.

Shepherd, W.G., "Trends of Concentration in American Manufacturing Industries, 1947~1958",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May 1964.

_____, *Market Power and Economic Performance,* Skokie, Ill.: Rand McNally, 1970.

Stigler G.J., "Archibald versus Chicago", *Review of Economic Studies,* February 1963.

White, L.J., *Industrial Concentration and Economic Power in Pakista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4.